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금주 미사 독서: 이종재 프란치스코, 조은영 베다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다음주 미사 독서: 홍진국 클레멘스, 한영주 리드비나	봉헌금: \$137
금주 미사 복사: 최고은 소피아	교무금: \$380
다음 주 미사 복사: 김지원 카린	매일미사: \$5
금주 미사 해설: 우영희 카타리나	감사헌금: \$100 (유성모 요셉 주임신부)
다음 주 미사 해설: 윤보연 소화 데레사	-----
반 주: 조은영 베다, 황지혜 레지나, 강동현	합계 : \$ 622
회 계: 황성필 요한	봉헌봉사: 김태진 하상 바오로
친교실 정리: 1 구역	다음주 봉헌봉사: 전은숙 글라라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교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친교/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남성교우 기도모임	격주 금요일 (3 월 22 일 저녁 8:00, 사제관)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1 시 (장소: club.catholic.or.kr/thekccm 게시판 참고)
교리 모임	미정
골프 모임	동계 휴식기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매월 둘째주 토요일
2 구역	매월 첫째주 토요일
3 구역	매월 셋째주 토요일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복음 말씀 계속)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에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히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 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아들이아, 네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기뻐하여라.	
【오늘의 성가】 시작: 122 봉헌: 212 성체: 174 파견: 489	

주임 신부 유성모 요셉 (608) 293-1114 사목인장 이종재 프란치스코 (608) 772-5701		 홈페이지 club.catholic.or.kr/thekccm Facebook 그룹 Facebook 검색에서 “매디슨 한인천주교회” 검색 이메일 kccmwi@gmail.com
사순 제 4 주일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Madison		2013 년 3 월 9 일
<제 1 독서> 여호수아기의 말씀입니다. 5,9 ~ 10-12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 서 말씀입니다. 5,17-21		회답송 복 음 환호송 복 음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 ○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5,1-3.11 ~ 32 그때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인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인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나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복음 말씀 원문에 계속됩니다)



하느님의 더딘 징벌과 무디어지는 우리 양심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루카 13,5) 물론 우리들의 경험에 따르면,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즉시 벌을 주지도 않으셨고 우리의 회개가 다소 늦어진다 하더라도 성급하게 진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더딘 징벌이 과연 우리에게 이익이 되거나 안심해도 되는 상황일까요?

오늘 제 1 독서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멎었다.”(여호 5,12)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하며 울부짖던 이스라엘 민족을 가엾이 여기시어 모세를 시켜 구해내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를 함으로써 하느님께서 진노하시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제대로 회개하지 않아 가나안 땅에서 구원의 은총을 상징하는 첫 소출을 먹기까지 40 여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인내하시어 그들을 당장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지만, 광야에서의 40 년 생활이 결코 그들에게 이익이 될 만한 즐거운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작은아들도 처음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며 방탕하게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작은아들은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나 허기진 배를 채워야 하는 신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루카 15,18)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달라는 작은아들을 마주한 아버지는 그를 용서하시고 큰 잔치를 열어 주십니다. 이렇게 작은아들은 밑바닥까지 떨어져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회개함으로써 고통의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아버지의 사랑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40 년을 광야에서 보낸 이스라엘 민족과 즉시 아버지께 돌아와 죄를 고백한 작은아들 중, 누가 더 현명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어쩌면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민족과 큰아들이 같은 부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복음에서 큰아들은 아버지의 관대한 처사에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불만을 표현합니다. 게다가 ‘내 것이 다 네 것’이라는 아버지의 위로의 말에도 큰아들은 시큰둥합니다. 사실 우리는 큰 죄를 지으며 살지 않는다고 마치 하느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의인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일에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회개도 지연시킬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회개도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제 2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2 코린 5,19) 만드셨다고 언급합니다. 때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지만, 하느님의 본심은 우리가 당신과 화해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하느님의 후한 처사에 양심이 무디어지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하느님의 후한 처사에 반감을 갖지 말고, 즉시 회개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전영준 바오로 신부 / 카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 공지사항

- 사순시기 판공성사 안내
부활 대축일 전 주님 수난 성지주일(3 월 23 일)까지 부활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해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미사 30 분 전 부터 고해성사를 드립니다)
- 올 해 전례부 및 봉사단을 맡아 봉사해주시는 분들을 소개 드립니다.
권민호 바오로, 김보미 로사, 김지원 카린, 김태진 하상바오로, 성인영 마리스텔라, 우명희 카타리나, 유지원 카타리나, 윤보연 소화 데레사, 윤지희 데레사, 전은숙 글라라, 최고은 소피아, 강선우 마르가리따, 이주현 안드레아, 이지는 월프레드
- 올 해 성가대 및 반주단을 맡아 봉사해주시는 분들을 소개 드립니다.
지휘: 한영주 리드비나, **반주:** 조은영 베다, 황지혜 레지나, 강동현, **성가대:** 이제니수 로사, 김성현 글라라, 김우종 닐로, 김주현 미카엘, 김현진 소화 데레사 박경홍 보나파시오, 박주원 올리벳다, 석우경 안드레아 (성가대장), 유수진 카타리나 윤영미 엘리사벳, 이수지 안나, 이유진 프란체스카, 주만수 미카엘, 최미진 율리안나, 한승호 임마누엘, 홍효정 소화 데레사, 홍진국 클레멘스, 양지웅 라파엘
- 올 해 독서단을 맡아 봉사해 주시는 분들을 소개 드립니다.
김보미 로사 (독서단장), 홍진국 클레멘스, 한영주 리드비나, 조은영 베다, 황지혜 레지나, 이승환 안드레아, 한병철 바오로, 강후길 프란체스코, 전은숙 글라라, 이종재 프란체스코

우리 공동체 소식

< 새로 오신 교우분들을 환영 합니다>

조형준 (visiting scholar) - 2 구역.

곽일엽 안드레아, 전희재 아델라이데, 박현정 베로니카 - 대학원생 구역

<3월 미사전 묵주기도 지향>

3월 기도지향은 새 교황님을 위하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미사시작 20 분전에 묵주기도가 시작되오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기도모임>

성모회 기도 모임에서 사순기간 동안 십자가의 길을 바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참아내셨던 십자가의 수난을 저희 마음에 새기면서 깊은 묵상과 기도로 주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보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평화와 기쁨과 고요함과 자기 절제의 길이라고 합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Verona 에 있는 St. Andrew 성당입니다. 날씨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오시기전 게시판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club.catholic.or.kr/thekccm)

<독서단 모집(계속)>

독서 봉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은숙 글라라 자매님 (esjeon95@mac.com) 혹은 김보미 로사 자매님 (bomi921@gmail.com)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적정리 (계속)>

교적 정리가 진행중입니다. 성당 임구에 비치된 교적 양식을 작성하셔서 교적을 담당하는 **홍진국 클레멘스형제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는 성당 홈페이지 게시판의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신 후 메일로 (jkhong2350@yahoo.com) 보내주셔도 됩니다.

< 성가대 모집 (계속)>

성가대원과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교우분들께서는 지휘자 한영주리드비나 (lidiwinahan@gmail.com) 에게 문의하시거나, 미사전후에 지하 Music Room 에 직접 들려주셔도 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